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엄불선' <11>



칭명염불과 엄불선의 수행단계

타당정도를 염원하는 칭명염불을 행하거나 유심정도를 지향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엄불선을 행하거나 그 수행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가는 길을 알고 행하면 안심(安心)을 얻고 확신으로 정진할 수 있습니다.

무량광경을 은 몸으로 체현하는 관불삼매를 성취하는데 이것이 엄불의 깨달음입니다. 엄불선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면 고뇌와 좌장으로 불안해하는 생명에게 안심과 희망을 부여하며 회향하게 됩니다.

자각의 종교라는 고정관념 버리고 자비광명에 의지하는 신행혁명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믿음으로 안심을 얻습니다. 엄불삼매를 성취하여 안심을 얻으면 자비광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히 일체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생활로 연결됩니다.

유류지 못한 것입니다. 죄장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이(理)와 사(事)의 참회법으로써 다스립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니 두려움 없음을 배우는 무위(無畏)로써 다스립니다.

대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 요약

개념에 매이지 말라 열반은 눈앞에 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7일간 강의



20일까지 7일간 진행된 <금강경> 강좌의 첫날 법문에 나선 대진 스님(백장암선원·사진)은 '법과 세간법에 대한 집착, 열반과 해탈, 깨달음이란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순결한 텅 빈 속에서 침묵과 휴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금강경>은 2500년전의 한때(一時)만 설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정사의 1250인과 여러분이 함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최장(罪障)은 죄악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죄는 물리적 구속이요, 악은 양심적 죄의식으로 자

● 내가 사라져야 법문이 들린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 <금강경>은 듣는 데서 시작하고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존재와 삶에 대한 부처님의 진실한 응성은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들을 수 없습니다.

● <금강경>은 '지금 여기' 서 설해진다

위빠사나선원, 미안마서 수행

한국위빠사나선원(지도법사 묘원)은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총 30일)까지 미안마 집중수행 및 성지순례를 갖는다.

● 깨달음은 마음과 무관하다

'깨달음은 마음'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마음과 무관합니다. 진여심이나 평상심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설한 명칭입니다.

● '어떻게' 하려는 순간 이미 어긋났다

깨달음에서 '어떻게?'란 말은 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도와 노력으로 자기를 뜯어고치고 향상시키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휴식하세요.

● 깨어있는 참나찰나가 속해

깨달음과 열반은 저 멀리 설정된 이상향이 아니라, 집중수행을 끝낸 뒤에는 1주 동안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등 미얀마 전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한다.

법왕정사, 3천 배 철야정진

양평 법왕정사(주지 청건)는 9월 25일(토) 오후 7시부터 26일 오전 7시까지 분당 대안사에서 3천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금강경> 법문을 듣고 기억하거나 더 알고 싶어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심, 무념이 되는 것이 <금강경>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9월 14일 서울 보문사에서 대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경청하는 불자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면 참나찰나 수자상이 발동하면 자비심도 사라집니다. 이 위해서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경전은 집착을 풀어주는 약

부처님은 제법의 무상함을 알고 집착에서 떠나도록 방편문을 열었습니다. 열반이니 해탈이니, 진리니 법(法)이니 하는 모든 가르침이 '중생의 집착을 풀어주는 약(應病與藥)'입니다.

● 마음은 조복할 대상이 아니다

마음을 항복시키려 하지 마세요. 몸을 항복 받은 후 자기 마음과 싸움을 하지만, 이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새로운 아집을 형성합니다.

● 자의식이 버릴 때 참된 보시 가능

절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두껍고 큰 수건, 담뭍을 수건, 갈아입을 옷 2벌, 두꺼운 면양모 등이 필요하다.

국청회, 금강경 대강좌

국청회 운과 상임법사는 10월 15일~12월 29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법당에서 금강경 대강좌를 연다.

'내가 있다'는 자의식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가 발동하면 자비심도 사라집니다. 이 자아라는 특성은 자기자신 보다 소중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법의 무상함을 알고 집착에서 떠나도록 방편문을 열었습니다. 열반이니 해탈이니, 진리니 법(法)이니 하는 모든 가르침이 '중생의 집착을 풀어주는 약(應病與藥)'입니다.

글 · 사진·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Four Days of Gyeongju' (四日京畿) featuring 'Qi Gong' (氣功) and 'Zi Sheng Wan' (自生丸)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www.chgg.co.kr.

Advertisement for Durian (DURIAN) featuring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Buddha enjoyed) and '두리안(DURIAN)' with product detail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You can get slim) featuring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and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당노' (Diabetes) featuring '당노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and '당노 혈당 측정기'.

Advertisement for '관절염' (Arthritis) featuring '관절염' and '자생환(自生丸)' with a diagram of the human body and product benefits.